# 전국 최초 현대화사업 준공

##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K-water와 5년간의 협력으로 성과 달성

장수군과 K-water 동화권지사가 공동 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군 지방상수 도 현대화사업'이 환경부 주관으로 추 진하고 있는 전국 103개 지자체 현대 화사업 중 최초로 사업을 준공하게 되 었다.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의 구축과 지자체 수도경영 효율화 등을 위해 장수군 지역에 블록시스템과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망을 개선하여 유수율을 향상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시작하여 2022년 3월까지 5년간 약 250억원을 투입하여 장수군 전 지역에 대하여 블록구축 및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장수읍을 포함한 4개 읍면에 대하여 관망정비공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2017년 56.3%에 불과했던 현대화사업구간의 유수율이 2021년 기준 88.4%를 달성하여 한국상하수도협회로부터 2021년 12월에 성과판정 합격을 최종 통보받았다. 목표 유수율(85%이상)을 조기에 달성함에 따라상수관로에서 연간 300만톤의 새는 물을 절감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이 가능하게 되었다.이와 더불어 장수군은 수돗물 구입비용을 연간 15억원 줄일 수 있고, Kwater는 수돗물 생산비용을 연간 10억원 줄일 수 있어 온실가스 감축과 수



장수군과 K-water 동화권지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장수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이 환경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국 103개 지자체 현대화사업 중 최초로 사업을 준공하게 되었다.(왼쪽부터 최영환 k-water 동화권지사장, 박창음 장수군 시 설관리사업소장)

도시업 경영개선으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답 응극에도 기억을 낫으로 대응된다.

K-water 최영환 동화권지사장은 "이 번 사업 준공으로 장수군민 모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포용적인 물 복지 실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현재의 성과에 힘입어 장수군과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스마트 관망관리 사업, 스마트 상수도 플랫폼구축 등 후속 사업을 시행하여 체계적인 물 관리로 스마트 그린 장수군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막했다

박창음 장수군 시설관리사업소 소장 은 "이번의 성공적인 현대화사업 준공 은 장수군과 K-water, 두 기관이 5년 동안의 긴밀한 협조로 전국 최초로 이뤄낸 성과라 본다"며 "우리 군은 K-water로부터 인계인수한 시설물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군민이 보다 나은 최상의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농촌마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추진

#### 무주군, 부남면 유평마을 · 적상면 하조마을

무주군은 '2022년도 농촌마을에 대한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인구밀도가 낮아 배관투자의 경제성 미달로 도시가스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없는 농어촌마을에 도시가스 수준 으로 LPG를 공급하기 위한 취지다.

군은 사업비 11억7,200만 원을 확보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무주군부남면 유평마을(51세대)과 적상면하조마을(40세대)에 LPG 배관망 구축사업으 펼쳐다.

일정 규모 농어촌 마을의 유휴부지 등에 LPG 소형저장탱크를 설치하고 각 세대에 가스 배관, 보일러, 안전장 치, 가스계량기, 밸브 등을 연결하다.

군은 앞서 이탈 중 한국 LPG 배관망 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5 월까지 마을별 실시설계 및 측량을 실 시, 오는 11월 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 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군은 24일 마을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LPG 배관망 구축사업 개요 및 기대 효과와 향후 일정과 관 현해 질의・응답 등을 토대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유평마을과 하조마을은 도매업체로 부터 LPG를 대량으로 공급받아 소형 LPG용기 대비 30~40%가량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 도시가스 수준의 안 정적 연료 배송으로 안전성과 편리성 이 대폭 항상될 전망이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투자유치팀 박현우 팀장은 "LPG 배관망 구축사업은 농촌 마을의 정주여건 개선과 보편적에너지 복지 항상이 기대되는 사업이다"며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마을 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고원몰' 구매인증 후기 이벤트 참여하세요"

진안군 지영 온라인쇼핑몰인 '진안 고원몰'이 오는 4월 20일까지 한 달간 구매인증 후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안고원몰은 지난 달 화요타임세일 이벤트로 전품목 30% 할인행사를 2회 진행했다. 그 결과 행사일 2일간 약 400건이 넘는 판매를 올렸고 특히, 열 매마는 라이브커머스 진행 직후 주말 열매마의 주문이 급등한 것으로 주목 을 받았다.

이번에는 구매인증 및 구매후기 SNS 인증 이벤트 진행를 진행한다. 진안고 원몰에서 상품구매 후 구매번호를 Q&A 게시판에 남기면 3,000원 적립금을 지급하고 구매인증번호와 함께 50 자 이내의 재치 있는 사연후기를 공개 글로 게시하면 15명을 선정해 진안고 원볼 선물꾸러미를 제공한다. 또한 블로그, 인스타 등 SNS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고 진안고원몰 포토리뷰에 캡쳐해 올리면 진안고원몰 선물꾸러미를 증정한다.

선물꾸러미는 진안고원몰에서 인기 리에 판매하고 있는 상품 5종으로 발 송예정이다.

/진안=우태만기자

# 무주읍 산림조합~오산삼거리 지중화사업 마무리 박차

#### 주거환경 개선 · 교통 · 보행 불편 해소 · 개발여건 향상 기대

무주군이 현재 무주읍 산림조합~오 산삼거리 600m 구간에서 진행 중인 도로포장 복구를 차도는 3월 말, 보도 와 가로등 설치는 4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구간의 도로포장 공사는 도시계 획도로 개설시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3 월부터 진행해온 상수도 노후관로 교



체(무주군 / 관로매설)와 한전지중화 (L=540m, 한전 전북지사 / 특고압 및 저압 매설, 고압선 인입, 통신선로 매설, 임시포장복구)사업을 마무리하는 절차로, 도로포장은 지중화공사가 동절기로 접어든 12월에 끝이 나면서 중지됐으며 이달 2일에 재개됐다.

무주군청 건설과 이무상 과장은 "겨울에는 기온이 낮아 아스콘 포장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3개월간이나 복구가 미뤄져 본의 아니게 주민 불편이 초래됐다"며 "4월 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완벽하게 처리해 해당 구간이 깨끗한 거리, 안전한 도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무주읍 산립조합~ 오산삼거 리 지중화 사업은 총 사업이 12억 8천 여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주거환 경 개선과 교통불편 해소, 주변지역 개발여건 향상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 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의회, 조사료 경영체 협의회와 간담회 개최

장수군의회(의장 김용문)는 지난 23 일 장수군 조사료 경영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장수군 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료의 중요성과 그 활성화 방 안등에 대하여 논의했다.

장수군의회 7명의 전 의원과 각 지역별 조사료 경영체 대표 6명, 장수군 축산과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 서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총 조사료 소요량의 53% 정도의 생산에 지나지 않는 점을 이야기하며, 축산농 가의 사료 구입 비용과 관외조사료 구입 비용 절감을 위해 장수군의 조사료 생산기반을 더욱 확대해야 할 것에 대해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조사료 경영체 대표들은 조사 료 생산·수확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들이 농가와 경영체의 수요에 턱없이



부족하고, 그 지원단가 또한 현실과 동떨어져 있음을 이야기하며 경영체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현실성 있 는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김용문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하 기로 하고 "각종 사업에 대한 요구 및 건의사항의 시의적절한 군정반영을 위해 서로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이 야기 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 지역 **수 식 통**

# 박주홍 정천우체국장 전북도의회 의원 출마 선언

진안군 정천우체국 박주홍 국 장(58) 24일 오전 10시 30분 진 안군청 브리핑룸에서 "진안과 전라북도에 제대로 된 비전을 제시하고 제대로 된 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새로운 대표 선수가 되겠다"며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제8회 전라북도 도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날 박주홍 국장은 "진안을 비롯한 전북동부권은 지역 내 총생산의 고작 9.8%, 인구는 11.3%에 불과한 못사는 지역 내 에서도 '특히 못사는 지역'일 뿐이라"며 "이는 기존 진안과 전북의 민의를 대표하는 선수들 이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 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국장은 도의원이 되면 첫째, "용담호 관련 진안군의 제 몫을 찾고 제 값을 제대로 받아 오겠다. 둘째, 백운면 국립 지덕 권 산립치유원이 지역민과 제대 로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섯 가지의 비전을 제시했다.

박 국장은 22년간 정천 우체국 장으로 재직하면서 진인군 생활 문화예술 동호회 회장을 겸임하 면서 지역 내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외부활동을 수행했다.

/진안=우태만기자

# 이충국 전 도의원 진안군수 출마 포기 선언

이충국 전 도의원(69)은 24일 오전 11시 진안군청 브리핑룸에 서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6월 1 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진 안군수 출마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은 "30여년을 정치에 몸 담아오면서 가족과 지인들 고생만 시키는 정치를 이제는 그만 둘 때가 되었다"며 "그동안 저를 성원해 주신 군민들에게 고개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오는 6월 1일 지 방선거에서 어느 후보측에서 도 와달라는 요청이 있을 때 어떻 게 하겠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단호히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이번 진안군수 출마 포기도 스스로 결정한 사안이라 며 누구의 압력이나 권고도 없 었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기자

